세븐틴, 대세 도약 위한 '러브 앤드 레터'

첫 번째 정규앨범 발표

작사 · 작곡 · 프로듀싱 등 직접 소화 실력 발휘

세븐틴은 지난해 5월 첫 번째 미니앨범 '세븐틴캐럿(17CARAT)'으로 데뷔한 지 한 달 여 만에 두 번째 미니앨범 '보이스 비(BOYS BE)'로 수퍼 루키가 됐다.

그룹 '세븐틴'이 2015년의 루키에서 올해의 대세로 거듭나기 위한 도약을 시작했다. 25일 0시 공개하는 첫 번째 정규앨범 '러브 앤드 레터(LOVE&LETTER)'를 통해서다.

세븐틴은 지난해 5월 첫 번째 미니앨범 '세븐틴캐럿(17CARAT)'으로 데뷔한 지 한 달 여 만에 두 번째 미니앨범 '보이스 비(BOYS BE)'로 수퍼 루키가 됐다.

작사, 작곡부터 프로듀싱, 안무 창작까지 직접 소화하며 '자체 제작돌'이라는 수식어를 얻으며 신인 그룹으로는 이례적으로 음반 판매 차트 순위권에 올랐고, 지난해 가요 시상식에서 신인상을 거머쥐었다. 팬덤도 매섭게 확장되고 있다.

중국인 멤버 디에잇이 서툰 한국말로 "이번 앨범 저희한테 정말 중요하다"고 말한 것처럼 지금 첫 정규앨범을 들고 나온 세븐틴은 루키를 넘어설 '대세'로 올라서느냐 아니냐의 기로에 있다.

세븐틴의 '러브 앤드 레터'는 "엄청나게 정성을 들여 준비했다"(버논), "열심히 준비했다"(도겸 · 정한 · 디노), "다같이 열심히 작업한 앨범이다"(승관)라고 입을 모을 정도로 고민하고 노력한 결과물이다.

'자체제작돌'이라는 타이틀에 맞게 이번 앨범에도 멤버 전원이 참여했다. 전반적인 작곡과 프로듀싱은 우지가, 퍼포먼스는 호시가 맡았다.

다른 멤버들도 작사가로 앨범에 이름을 올렸다.

타이틀 곡 '예쁘다'는 사랑한다는 말을 '예쁘다'라는 말로 치환해 소년의 첫사랑을 표현한 곡이다. 아직 어리고 순수한 소년에게 사랑한다, 좋아한다는 말보다 가깝게 느껴지는 단어를 사용했다.

3인용 쇼파 하나를 올려 두고 13명 멤버 전원이 사방을 오가며 무대 전체를 꽉 채워 사용하는 안무가 인상적이다. 멤버 호시가 새벽 와플가게 쇼파에 앉아 와플을 먹다가 떠올렸다.

앨범에는 '예쁘다'를 비롯해 패기 넘치는 젊음을 표현한 '엄지척', 이현도와 공동작업한 '이놈의 인기', 메인보컬 승관 · 도겸이 부른 '세이 예스(Say Yes)', 팬들을 위해 만들고 부른 노래 '사랑쪽지' 등 모두 열 곡이 실렸다. 지난 앨범에서 발표했던 곡의 리믹스 버전도 담겼다.

오는 27일 MBC뮤직 '쇼!챔피언'을 통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세븐틴은 이후 서울을 시작으로 아시아 투어에 나설 예정이다.

그야말로 초고속 성장이다.

/정해은기자

추신수 · 강정호 · 박병호 메이저리그 올스타 투표 후보 올라

이대호는 아담 린드에게 아쉽게 자리 내줘

추신수(34 · 텍사스 레인저스)를 비롯해 강정호(29 · 피츠버그 파이어리츠), 박병호(30 · 미네소타 트윈스)가 나란히 메이저리그 올스타 투표 후보에 올랐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25일(한국시간) 오는 7월1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펫코 파크에서 열리는 87회 올스타전에 나설 선수를 뽑는 올스타 투표 후보 명단을 공개했다.

올 시즌 8명의 코리안 메이저리거 중에는 '맏형' 추신수(33)가 아메리칸리그 외야수 부문에 올랐다.

지난해 내셔널리그 올해의 신인 3위에 올랐던 강정호(29)가 내셔널리그 3루수 부문에, 데뷔 첫 시즌 4개의 홈런포를 가동하고 있는 박병호(29)가 아메리칸리그 지명타자 부문에 후보로 나선다.

올스타 투표 후보는 각 구단에서 포지션별로 한 명씩 지명한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다.

추신수는 종아리 부상으로 부상자 명단에 올라 있지만 텍사스의 붙박이 외야 자원으로서 후보에 오른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흥미로운 점은 지난해 9월 무릎과 정강이 부상으로 수술을 받은 뒤 아직까지 빅리그 무대에 복귀하지 못한 강정호가 후보에 오른 것이다.

지난해 기량을 입증한 강정호가 정상적인 몸상태로 팀에 복귀한다면 주전 3루수로 뛰는데 전혀 걸림돌이 없다는 뜻이다.

양대리그 올스타 투표 내야수 후보 가운데 올 시즌 경기 출전 기록이 없이 후보에 오른 선수는 강정호와 내셔널리그 유격수 부문에 추천된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자니 페랄타가 유이하다. 페랄타는 엄지손가락 부상으로 6월초에나 복귀가 가능한 상태다.

데뷔 시즌을 치르고 있는 박병호는 미네소타가 지명타자 후보로 당당히 추천했다. 1루수 후보로는 조 마우어를 올렸다.

이대호(34 · 시애틀 매리너스)는 플래툰 시스템 파트너인 아담 린드에게 후보 자리를 내줬다. 아직 주전 경쟁을 벌이고 있는 김현수(28 · 볼티모어 오리올스)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볼티모어는 신예 조이 리카드에게 외야부문 한 자리를 내줬다.

팬들의 투표로 결정되는 타자들과 올스타전에 나서는 투수들은 선수 투표와 양대 리그 올스타 감독이 선정한다.

메이저리그 올스타 투표는 지난해 6억 2000만명이 투표에 참가했다.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투표로만 진행된다. 메이저리그 공식사이트(mlb.mlb.com)와 각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투표가 가능하다. 5월부터는 한국어 투표도 할 수 있다.

올스타 투표는 1인당 최대 35회까지 가능하며, 24시간 동안 최대 5회까지 투표할 수 있다.

투표는 미국 동부시간 기준 6월30일 오후 11시59분(한국시간 7월1일 오후 12시59분)까지 가능하다.

/김민근기자

마이산컵 전국탁구대회 성료

탁구동호인들의 축제인 '제20회 마이산컵 전국탁구대회'가 지난 23~24일 이틀간에 걸쳐 성황리에 치러졌다.

올해로 20번째를 맞는 이번 대회에는 단체전과 개인전 등 전국에서 1,200여명의 선수가 참가해 열띤 경합을 벌였다.

마이산컵 전국탁구대회는 1997년 첫 대회를 개최한 이래 올해 20회를 맞은 역사와 전통이 있는 대회로 오랜 경험만큼 노련한 경기진행과 대회운영으로 탁구동호인들의 지지를 받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대회 참가 인원이 늘어 가고 있다.

또한 진안군 탁구협회에서는 해마다 한번 대회에 참가한 팀들에게는 유선, 문자 등으로 다시 참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인연을 이어가고 있으며 숙소, 음식점 안내에서부터 진안에서 숙박하는 팀들을 직접 방문해 불편한 점은 없는지 살피며 선수들을 지원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진안=우태만기자

와그너 등 아이스쇼 '올댓스케이트' 출연진 발표

2016 국제빙상연맹(ISU) 피겨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싱글 준우승을 차지한 애슐리 와그너(25 · 미국)가 국내 팬들 앞에서 명품 연기를 선보인다.

올댓스포츠는 오는 6월 열리는 아이스쇼 '올댓스케이트 2016'의 출연진 명단을 25일 발표했다.

해외 선수로는 지난 3월 세계선수권에서 극적인 은메달을 따낸 와그너가 참가한다. 와그너는 앞선 세계선수권에서 미국에 10년 만의 여자싱글 메달을 안기며 관심과 기대를 한몸에 받았다. 2014 소치동계올림픽 동메달리스트이자 '의병장의 후손'으로 알려진 남자 싱글의 데니스 텐(23 · 카자흐스탄)의 출연도 확정됐다. 국내 출연진으로는 여자 피겨 간판으로 꼽히는 박소연(단국대)과 유망주 유영(문원초), 임은수(한강중) 등이 눈길을 끈다. 남자 싱글의 기대주인 이준형(단국대)과 김진서(갑천고)도 /국내팬들 앞에서 연기를 선보인다. 국가대표 아이스댄스 팀인 레베카 킴-키릴 미노프도 이번 아이스쇼에 출전한다.

올댓스케이트2016은 오는 6월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목동 아이스링크에서 열린다.

/김민근기자

여자탁구 전지희-양하은, 폴란드오픈 복식 정상

여자탁구 전지희(포스코에너지)-양하은(대한항공) 조가 올 시즌 세 번째 국제대회 정상에 올랐다.

전지희-양하은 조는 24일 밤(한국시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2016 국제탁구연맹(ITTF) 투어 폴란드오픈 여자복식 결승에서 리지에(네덜란드)-리치안(폴란드) 조를 3-0(11-4 12-10 11-7)으로 완파했다.

전지희-양하은 조는 올해만 세 번째 금메달을 합작하며 찰떡 호흡을 뽐냈다. 통산 7번째 우승이다.

전지희-양하은 조는 2세트만 듀스 끝에 승리했을 뿐 나머지 두 세트는 안정적인 기량으로 손쉽게 마무리 했다.

나머지 선수들은 모두 결승행에 실패했다.

남녀 단식 주자들은 전원 16강에 주저 앉았고 남자복식 정영식(미래에셋대우)-이상수(삼성생명) 조는 준결승에서 니와 고키-요시무라 마하루(이상 일본) 조에 0-3(4-11 3-11 7-11)으로 졌다.

/김민근 기자